

인론 인론중재위원회 NEWS 사람

Special News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Interview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김상겸 위원장



03 **이달의 주요뉴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04  **인터뷰-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김상겸 위원장**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06  **위원단상**
제비꽃

07  **직원마당**
승리하는 법

08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 수료기**
언론의 자유와 도덕적 가치관

09 **기고**
독고진이 없는 우리의 선택

10 **이일환의 음악의 발견**
판소리 ‘한국의 서사 성악과 기악 음악’

11 **이런얘기 저런얘기**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12 **위원동정**

13 **위원회 소식**

14 **위원회 통계 현황**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주제로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법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가락고 등 59개 학교 130여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이번 인턴십은 8월 중순까지 총 10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의 업무, 언론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의 이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은 학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 언론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서울중재부 심리실 견학과 기사심의 업무 참관 등 현장감 있는 진행으로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3시간에 걸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는 교육 이수증을 수여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인턴십 프로그램은 언론과 법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여름방학에 201명, 겨울방학에는 211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방학 기간을 이용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방법은 방학 초에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김 상 검 위원장

現)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現)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원장

독일 프라이부르그대 법학박사

지난 달 포털사이트 네이트가 해킹당하면서 무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기관인 농협이 해킹당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국내 유수의 플랫폼 서비스에서마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은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오는 9월 30일 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전파해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김상검 위원장을 만나보았다.

Q.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기관입니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누출되어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2월에 발족되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분쟁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118센터’에 상담 신청이 접수된 건은 5만 5000건에 달하며, 이를 거쳐 위원회가 직접 다룬 사건은 191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문제라면 정보통신에 관한 것만 아니라 소비자관련, 의료정보관련 사건의 경우에도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되리라 봅니다. 또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책자 발간, 기업대상 특강 등 여러 가지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해결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개인정보를 하나의 재산권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모 대학병원 의사가 성공적인 수술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논문에 수술 당사자의 실명을 포함한 채 포털사이트에 올려 환자의 신상이 유출됐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의료정보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고, 결국 위원회에서 손해배상 100만원과 해당 논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은 신청인이 병원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형 전후 사진이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알게 되어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수술비는 물론, 다음 성형수술까지 해주는 것으로 합의가 됐죠. 액수로만 보면 수천만 원에 이를 겁니다. 앞으로 이 분들은 논문이든 진료과정에서든 환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Q. 개인정보 유형은 상당히 다양한데 어떤 것들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건가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모두 개인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만으로도 누구인지 식별이 되죠. 거기에 주소가 들어가면 더 확실해지고, 직업이나 신상관계가 더해지면 민감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 담겨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핀 제도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한데, 아직까지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 들어와 유럽연합이 유럽헌법을 발효시키면서 개인정보보호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과 법률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배상정도가 다릅니다. 한·EU FTA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럽에 진출했을 때 그쪽의 기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자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이죠.

Q.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9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게 됩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340만 여개의 민간업체는 물론 개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책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설립됩니다만, 분쟁사건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계속 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개인정보분쟁에 있어서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단분쟁조정도 가능해집니다. 옥션 가입자 정보유출 사건처럼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집단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권한이 확대됐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부문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Q. 인터넷에서의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SNS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이용해 기사를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기능과 필요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문제 삼지 않고 있을 뿐이죠.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용인하는 풍토였지만, 글로벌 시대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신 경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사용자가 저장한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는 공개에 동의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카카오톡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처럼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했을 때 분쟁사건이 벌어지면 기업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국가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Q. 법학자로서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헌법이 추구하는 기능 중 하나인 '사회적 평화'는 혼란이나 분쟁을 해결해 국가적 안정을 추구하는 걸 의미하죠. 또 헌법은 어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ADR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사법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당사자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또 재판이 증가하면 사법부의 부담도 증가하게 되죠.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인 ADR을 활용해서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ADR에 대한 기본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산하에 병렬적으로 초·중·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이 있는 것처럼 ADR도 기본법이 있으면 그 아래 언론중재, 소비자중재 등의 법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면 ADR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Q. 끝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본인의 피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되고, 그 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면 2차, 3차 피해가 발생해 걸잡을 수 없이 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우선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보완솔루션 등 전문기술을 갖춘 담당관을 두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개인정보가 해킹당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민간에서의 인식 전환도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위원회가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무관심한 경우가 아직 많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들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이핀 등의 대체 수단을 써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초기비용은 들겠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분쟁이 생겼을 때 드는 비용에 비해서는 부담이 덜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산시켜야 합니다.

• 정리 / 남승균(홍보팀) • 사진 / 박경미(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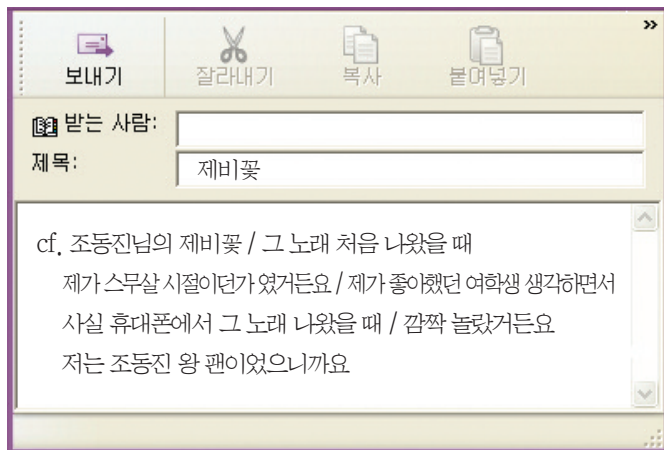
제비꽃



김정숙 위원
대구중재부
영남대 국사학과 교수

그날은 ‘옛길 찾기’ 프로젝트로 현장답사를 가는 날이었다. 그는 그곳에 왔다. 그는 내가 봉사자로 참여하는 단체의 새로운 장으로 부임한 터였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우리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우리를 소개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그와 나는 서로 알아야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되어 종일 같이 산 길을 걷다가 대구 시내로 되돌아 왔다. 팀 전체가 앞서거나 뒤서거나 자유스러운 팀이라 어느 때가 그와 같이 걷게 되어 몇 마디 하게 되었다. 마침 <위대한 침묵(Into Great Silence)>이란 영화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을 때였다. 종일 말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그는 체구보다는 목소리 톤이 굵고 힘찼다. 그런데 위대한 침묵에 대해 얼마나 열정적이던지 꼭 오랫동안의 침묵 끝에 나온 사람 같았다.

이후 그와 내가 어느 방송 프로그램을 짤 때였다. 내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어서 보내면, 그가 보충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했다. 어느 경우와 같이 이메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프로그램을 마무리 지어도 좋을 듯하다는 내용의 메일이 왔다. 그런데 그 메일 뒤에 이런 내용이 장난스럽게 붙어 있었다. 말이 없어서 그의 생활을 모르는 내게는 드문 ‘그의 생활 조각’이었다.



내 휴대폰 컬러링 이야기였다. 나는 처음 컬러링을 선택할 때부터 이 곡을 정해서 지금까지 지니고 있다. 이 곡은 드라마 ‘겨울연가’에 나오면서 크게 사랑받은 곡이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오래 전에 그 노래를 좋아한 남성이 있었던 게다. 내 컬러링을 노래하는 가수가 알려지지 않은 가수여서인지 사람들은 내가 직접 불렀냐고 묻기도 한다.

내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나오자 격려차 전화하신 어떤 신부님께서 그 노래 소리가 너무 슬프니 바꾸라고 하셨다. 그분도 대장암 수술을 하신 직후여서였는지 처연하다고 느끼신 모양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 신나는 곡인 “독도는 우리 땅”으로 할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가 버렸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지니게 된 컬러링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를 놀래키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휴대폰 컬러링 하나가 커다란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서양에 비해 한국의 휴대폰은 매우 장식적이다. 휴대폰 고리장식이 무척이나 발달되어 있고, 또 널리 퍼져 있다. 휴대폰 고리는 서로 주고받는 가벼운 선물로도 널리 활용된다. 그리고 휴대폰 컬러링 역시 광범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 전화 개통할 때 나오는 음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람, 트로트, 가곡, 클래식, 힙합 등 온갖 종류의 음들이 있다. 새마을 운동 노래가 나오기도 한다. 또한 휴대폰 배경 장식도 화려하고 다양하다. 물론 전화가 걸려왔을 때 자신이 듣는 음악도 갖가지이다. 휴대폰 기기(機器) 자체에 깔려있는 음악을 그대로 번갈아가며 골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별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독특한 음을 지닌 이도 있다. 어떤 이는 전화만 오면 장담이 울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인님 전화 받으세요”하고 작은 계집아이가 소리 지르기도 한다. 이들이 휴대폰 소유자의 인상을 결정짓는다. 그 하나하나가 또다른 나의 표현이며, 나의 대화수단이다.

내 컬러링에 어떤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내게 또 하나의 재산과도 같았다. 그의 마음 깊이 쌓여 있던 대화가 내게 한꺼번에 전달되는 듯했다. 그와의 대화가 늘 담백했던 것은 이러한 암묵진 전달이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다. 그가 전화를 하면, 언제나 “부르시면 가야지요”라고 흔쾌히 대답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여겨진다.



승리하는 법



박지환
정책연구팀

24일 동안 1만리를 달리는 지구촌 최고의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 (Tour de France), 2003년 열린 이 대회의 대장정 중에 줄곧 선두를 달리던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고클라를 이겨내고 5연패를 달성한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 (Lance Armstrong) 이었다. 그런데 레이스가 끝날 무렵, 암스트롱이 어린아이의 가방에 걸려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뒤를 따르던 사람은 속적 안 울리히 (Jan Ullrich), 암스트롱이 5연패를 달성하는 동안 2위에만 머물러야 했던 그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그대로 페달을 밟기만 하면 우승으로 이어질게 분명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울리히는 암스트롱 옆에 사이클을 세우고 그가 일어나기만을 조용히 기다렸다. 몇 초 뒤 일어난 암스트롱이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그제야 자신도 출발했다. 결국 울리히는 또다시 61초의 차이로 암스트롱에게 우승을 내주고 2위에 머물렀지만 그는 2003년 투르 드 프랑스의 영웅이 되었다.

생활과 경제의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의 사상과 문화까지 서양의 전통적인 것을 닮아가고 있다.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지고, 감정적인 부분은 철저히 도려내야 살아남는다. 다큐멘터리 영화 '시대정신(Zeitgeist)'에서는 월 스트리트의 구성원은 이익을 위해 감정이 없는 로봇과 같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는 월 스트리트의 일원과 같은 이들에게 성공이란 단어가 따라 다니고, 이들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적, 물질적 경쟁에서 승리한 그들은 진정한 승리자일까? 랜스 암스트롱에 밀려 항상 2등을 하던 울리히는 패배자에 불과한 것일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강제'와 '선전', 그리고 '설득'이 있다. 가장 먼저 '강제'는 힘과 권력의 산물이다. 공포심이나 경외감을 수단으로 이용하며, 흔히 지배자와 피지배자간의 역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지배-피지배'라는 개념이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승리를 위한 도구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승리자와 패배자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게 되므로 권력과 경제력에 의해 밀린 약자들은 어쩔 수 없는 벽에 부

딛히게 되며, 이를 직설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들도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선전'은 이념적인 신념 체계나 도그마를 팔고자 할 때 이용되며, 편파적인 생각을 민도록 만드는 일종의 허위적 과정까지 포함되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다. 나치군의 선전이 괴벨스가 시민을 이끌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이 선전의 대표적인 예인데, 강제와 역시 선전도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에 진정성이 담기기 어려워 상대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을 뿐, 진정한 마음을 얻기는 힘든 면이 있다.

반면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유래한 '설득'은 물리적 힘이 아닌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행동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바꾼다는 점에서 강제와 선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상대방의 태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설득은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태도까지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진정성이 담겨 가슴을 울리는 설득에는 어두운 속내도, 힘의 불균형도 존재하지 않으며 두 명의 승리자만이 존재하게 된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경쟁, 혹은 양측의 의견이 부딪히는 상황들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조정 절차에서도 각자의 이야기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자기의 입장을 전달하느라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불합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커지고, 두 사람 다 패자가 되거나 해결된다 해도 반쪽짜리 승리가 될 뿐이다. 이것은 우리 생활 속 어느 작은 영역에서나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인 논리로 구분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지금 시대에는 다 같이 승리자가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오늘, 누군가와 충돌이 있었다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설득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2003년 투르 드 프랑스에서 경쟁 끝에 단상의 맨 뒷자리를 얻기보다, 보는 이의 마음속에서 영웅이 된 울리히처럼 말이다.



김헌태
분당 이매고등학교 3학년

언론의 자유와 도덕적 가치관

이번 여름방학은 언론중재위원회 인턴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자나 방송인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은 세상을 보는 창이기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언론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인턴십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당사자의 이해와 합의를 통해 언론매체와 개인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조정중재를 통한 사건의 처리기간이 14일에 불과하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인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피해구제율이 65%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법원으로 향하는 당사자에게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언론의 입장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위해 보도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개인의 기본권과 공익 사이에서 무엇이 우선인가의 문제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치고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저희 집 컴퓨터의 패스워드였습니다. ‘예의바른 말씨, 행동, 인격, 배려.’ 엄마가 만드신 이 긴 패스워드가 저희 3형제는 늘 불만이었습니다만, 엄마는 “이것이 엄마의 유언과도 같은 말이니 늘 기억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을 듣고 나니,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 매일 몇 번씩 무의식적으로 두드렸던 이 말이야말로 언론중재위원회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유일한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언론보도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뜻이겠지만, 한편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배려가 부족한 말들이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거름망 없이 세상에 퍼져 나가 인권 침해와 명예훼손이라는 부작용을

날고 있는 오늘날, 윤리의식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세세하고 명확한 법규를 제정해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권리, 언론의 보도 등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은 계속 생기겠지만,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무게를 둔 교육이 뒷받침된다면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이 넘쳐나는 지금,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말도 있고 익명을 빌미삼아 개인의 사생활까지 흥밋거리로 전락시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현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역시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달의 책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로버트 카파 지음 | 우태정 옮김 | 필맥



세계적인 사진에이전시 ‘매그넘 포터스’의 설립자이자 전설적인 포토저널리스트, 로버트 카파(Robert Capa, 1913-1954). 그러나 그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는 역시 ‘중군기자’다. 평생 동안 다섯 번의 전쟁에서 활동했고, 사랑하는 여인을 스페인 내전에서 잃었으며, 자신 또한 인도차이나 전쟁 촬영 중에 지뢰를 밟아 폭사했다. 공수부대의 낙하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군인들과 함께 적진 한복판으로 낙하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수많은 총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셔터를 눌렀다.

“중군기자의 사명은 전쟁의 내장을 세계 인류 눈앞에 드러내 보이고, 지구상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캐묻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당신은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다”는 그의 말들은 중군기자로서의 신념과 기자정신을 잘 보여준다. 전쟁에 최대한 다가가 현실 그대로의 전쟁을 보여주고 이토록 참혹한 전쟁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세계적으로 그를 유명인으로 만들었던 〈어느 인민전선파 병사의 죽음 (Spanish Loyalist at the Instead of Death, 1936)〉도, 제2차 세계대전의 보도사진 중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The landing at Normandy, 1944)〉도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다.

〈그때 카파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는 로버트 카파의 자서전적 2차 대전 중군기이다. 이 책은 그의 전설적인 사진들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에 대해 역사적인 기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그 사진들이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온통 흔들리고 핏트조차 맞지 않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표지 사진)이 그토록 큰 감동을 주는 이유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셔터를 누르고 있는 당시 상황과 결합되어 의미를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좋은 사진 한 장은 백마디의 언어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중군기자조차도 두려움에 손이 떨리는 상황, 그것이 바로 전쟁이다. 그리고 그토록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라도 셔터를 눌러야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기자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자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 될 것이다.

독고진이 없는 우리의 선택



변경민
사법연수원 41기 연수생

최고의 사랑, 구애정의 선택

최근 M방송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인기리에 종영되었다. 생계형 연예인 구애정이 톱스타 독고진을 만나 사랑을 키워가는 내용이다. 구애정은 인기 걸그룹 출신 가수였는데, 언론이 조작된 소문을 기사화하면서 비호감 캐릭터로 전락하지만 매번 묵묵히 견디는 선택을 한다. 다행히 독고진이 구애정을 지키려고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면서 구애정에 대한 의혹성 기사와 루머를 일축하는데 성공한다. 이처럼 언론매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흥미 위주로 보도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과연 언론 자유를 위한 면죄부를 주어야 할까?

언론 자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대국가적 관계에서부터 발전되어 왔다. 과거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반대하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대량 해직되면서도 언론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대국가적 관계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대국가적 관계와 더불어 오늘날 새로이 대두된 다른 한 축은 언론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는 대사인(私人)적 관계이다. 구애정의 예에서 보듯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는 심각한데 반해, 언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3부 권력과 함께 '제4부 권력'이라 할 만한 존재로 부상한데다, 마땅한 통제수단마저 없다. 따라서 이제는 대국가적 관계에서의 '언론자유'의 중요성 논의에서 더 나아가, 대사인적 관계에서의 '언론의 책임'을 말할 때가 온 것이다

언론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언론이 갖는 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고, 국가권력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부여한 힘(신군부 치하에서 창간된 세계 최초의 국민민주신문인 한겨레신문이 그 좋은 예이다)이므로, 언론은 이에 부응하여 그 기능을 다할 책임이 있다.

' $R=i a/t$ '의 공식이 있다. 1950년대 심리학자 고든 앨포트(Gordon Allport)와 레오 포스트먼(Leo Postman)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루머(Rumor)의 강도는 정보의 중요성(importance)

과 불확실성(ambiguity)에 비례하고 그 사회의 신뢰도(trust)에 반비례함을 나타낸다.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정보(중요한 정보)에 대해 언론매체가 모호함을 가중시키는 의혹성 가십(gossip) 기사를 내는 것을 흔히 접하는데, 이 공식에 의하면 이러한 기사는 불확실성의 요소를 높여 루머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확산된 루머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극대화하여, 자극적인 내용의 후속기사를 다시 찾게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상술이다.

고인이 된 최진실씨가 과거 사체에 관여했다는 증권가의 소문이 퍼지자, 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이 사체설 의혹을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체설이 확대재생산되고 여론이 오도되어 결국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했던 비극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사건에서 언론매체는 왜곡된 정보를 여과 없이 보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외면했다. 언론은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결코 옐로우 저널리즘을 위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독고진이 없는 우리의 선택,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

언론의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고 우리를 보호해 줄 독고진도 없을 때, 참고 넘어가기엔 너무 억울하지만 소송을 하고 싶어도 변호사비용이 부담스럽다. 이 때 비용부담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이 '언론중재위원회' (이하 '언중위')다.

그런데 현재 언중위의 평균 조정액이 법원의 소송 인용액의 약 1/13 수준에 불과해 권리구제에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효성 있는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중위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야 하고 과감한 직권조정결정을 해야 한다. 국가사회적 법익의 경우와 차별화해 개인적 법익의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징벌적 제재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언론이 무책임한 선정주의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정화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독고진이 없어도 걱정 없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존재하는 사회를 위해 언중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판소리

한국 의 서사 성악과 기악 음악

이일환(음악방송 Satio PD)

음반, 그러니까 레코딩(Recording)은 현재 음악이라는 장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술 형식이다. 에디슨에 의해서 축음기가 발명된 이래, 녹음기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음반을 만들어냈다. 음반은 공연이 가진 일회적인 현장성으로부터 벗어나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다. 물론 음반은 단순히 '소리를 재생하는 도구'에 머물지 않았다. 작곡가 에드가 바레즈는 "음악은 조직된 소리(organized sound)다."라고 말했는데, 점차 조직된 소리가 일차적으로 구현되는 곳은 공연장이 아니라 음반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반은 미적 판단이나 비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차적인 준거로 자리 잡았다.

음반이 이처럼 쿨대가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반이 되는 녹음기술의 끊임없는 진보에 따른 것이었다. 지금 똑똑한 젊은이들이 IT분야로 몰려드는 것처럼, 1950-60년대에는 녹음분야와 방송으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레코딩 기술은 대부분 이 때에 거의 완성된 모습을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레코딩은 단순한 소리의 채집이 아니라 음악가가 원하는 소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음악적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음반은 음악을 대표하는 예술 형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CD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는 현실에서도 음악산업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레코딩 기술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 여전히 음악가들이 원하고 의도하는 소리가 음반을 통해 충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그저 소리의 채집에 머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것은 음반, 그러니까 레코딩이 음악 감상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소개하는 음반을 들어보면 레코딩의 수준이 어떻게 음악 감상의 질적인 차이로 이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다.

이 음반은 지금은 모두 작고한 국악의 명인들, 명창 김소희를 비롯해서 지영희, 성금연 부부와 김윤덕 등이 1972년 미국 순회

공연 중에 녹음한 것이다. 일렉트라 논서치 레이블이 세계 민속 음악을 소개하던 '익스플로러(Explorer) 시리즈' 중 하나로 기획된 음반이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녹음된 이 음반은 훌륭한 연주와 기획이 최상의 녹음과 만나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명반이다. 첫 트랙은 김소희 명창이 김윤덕의 북에 맞춘 흥보가의 '박타령~똥타령'으로 시작한다. 김소희 명창의 소리나 김윤덕의 북소리는 손에 잡힐 듯 너무나 생생하고 사실적이어서 음반이라는 거리감을 잊고 몰두하게 해준다. 지영희의 피리독주 평조회상이나 가야금 명인 성금연이 풀어내는 가



야금 산조에서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 최고의 기량을 갖춘 국악 명인들의 전설적인 공연이 지금 바로 내 앞에서 펼쳐진다. 이 녹음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국악에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그 미묘한 음식의 변화가 음악을 어떻게 이끌고 받치는지 저절로 알게 된다.

만약에 20세기 후반의 국악음반들이 이 음반과 같은 수준으로 녹음되었다면 무엇이 달라졌을까?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니 개인

적인 경험에 한정해서 이야기해보겠다. 나는 이 음반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줬는데, 국악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이 음반을 듣고 나면 놀란 표정과 함께 그 소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음반만은 구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우리에게 국악 음반, 레코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한 소리의 채집이 아니라 음악가들이 원하는 소리로, 종종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성음(聲音)까지도 생생하게 녹음된 음반이 얼마나 있는지 자문한다면 그 대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명창 김소희의 소리를 녹음한 다른 좋은 음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이 음반의 녹음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온전한 실체로 보존해오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해외에서나마 녹음되어 전해진 이 한 장의 음반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최승민
대구사무소 소장

인간한계를 극복한 선수들이 달구벌에 모인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인간, 가장 높이 나는 인간, 가장 멀리 뛰는 인간을 직접 눈으로 볼 기회다. 100m를 9.58초에 뛰는 자메이카의 번개 우사인 볼트, 5m 이상의 높이를 뛰어넘는 러시아의 미녀새 이신비야바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오는 8월 27일 대구스타디움에 모인다.

달구벌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13번째다. 1983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회 대회까지는 4년 주기로, 3회 대회부터 2년마다 홀수해에 개최된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9번 개최되었으며, 일본에서 두 차례, 캐나다에서 한 차례 개최됐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가장 많은 250개 메달을 획득한 미국에서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러시아와 독일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메달을 얻었다.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의 메달도 없다. 북한은 1999년 스페인 세비아 대회에서 정성욱 선수가 여자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땀다. 정성욱 선수는 이 메달로 북한 체육인으로서 최고의 영예인 '인민체육인' 칭호와 '공화국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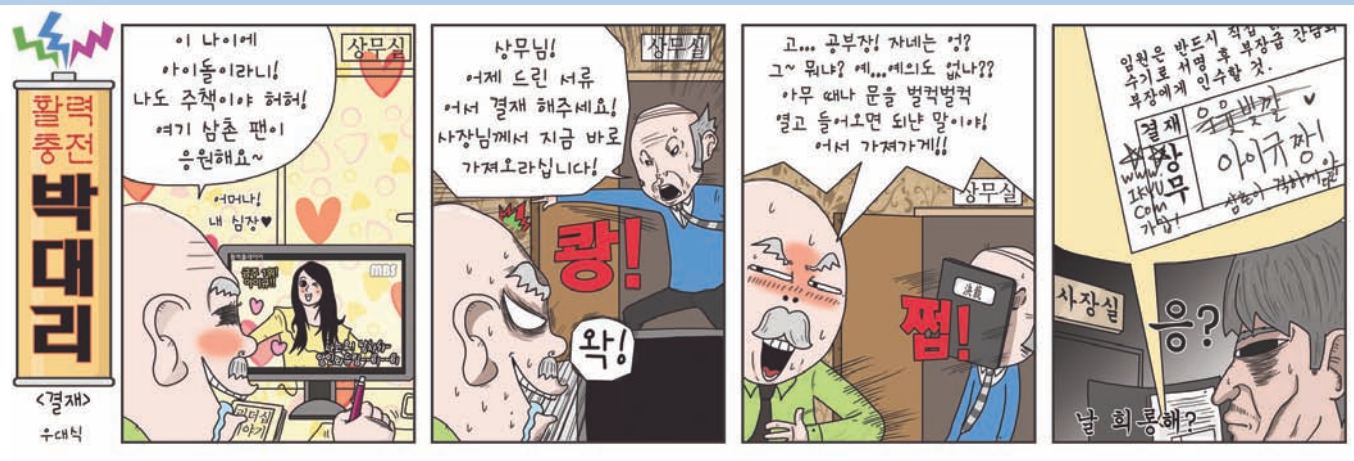
이번 대회는 총 47개 종목에서 각축을 벌인다. 남자는 24개 종목에서, 여자는 23개 종목을

겨룬다. 여자 종목에 없는 남자 종목은 50km 경보다. 남녀 종목 대부분이 같지만 다른 종목도 있다. 허들과 혼성경기다. 남자 허들은 110m를 뛰는 반면, 여자 허들은 100m이다. 트랙경기와 필드 경기를 함께 치르는 혼성경기에서 남자 선수는 10종목을, 여자 선수는 7종목을 겨룬다.

아마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몰릴 곳은 남자 100m 종목일 것이다. 더 이상 깨기 어렵다는 기록들을 계속 갱신하는 우사인 볼트 때문이다. 그는 카리브해 북부에 있는 인구 280만명의 작은 나라 자메이카 출신이다. 그러나 자메이카는 육상 강국이다. 역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80개 메달을 얻어 미국, 러시아, 독일, 케냐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왜 자메이카 선수들이 단거리에 능할 걸까? 몇몇 논문들과 뉴스에 따르면, 자메이카 선수들은 액티넨 A라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빨리 일으키는 특이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 또한 자메이카 특산물인 참마도 스피드를 배가시키는데 효험이 있다고 한다. 한가지 더. 과학적인 선수 육성도 크게 기여했다. 자메이카 공대는 세계적인 스프린터를 육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잠재력있는 선수들을 세계적인 선수들로 키워나가고 있다.

달구벌, 대구의 옛 지명이다. 달(達)은 넓은 공간을 의미한다. 너른 들판. 세계 육상 잔치를 열기에 좋은 곳이다. 너른 들판 달구벌에서 열리는 세계 건국들의 잔치. 많은 분들이 대구에 찾아와 세계 육상인의 축제에 한바탕 흥을 북돋아 주길 바란다. 손님 접대에 성의를 다하는 영남인들이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할 것이다.

CARTOON



COMMISSIONERS



▶ 국군포로귀환 및 6·25 참전유공자 돌봄사업 추진 기자회견 외

권성 위원장(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이사장)은 지난 6월 23일 인추협 사무실에서 국군포로귀환 및 6·25 참전유공자 돌봄 사업추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국군포로귀환 사업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6·25 참전유공자를 돌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6·25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에 대해 우리 사회가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 위원장은 참전유공자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9일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7·9(친구)데이’ 행사에 참석해 6·25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저소득층 참전용사 가정에 사랑의 쌀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 ‘클린미디어’ 캠페인 인터뷰

권성 위원장은 지난 7월 22일 ‘클린 미디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천지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부울언론학회 기획이사 임명

박경우 위원(동아대 신문방송학과교수, 부산중재부)은 지난 23일 제20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정기총회에서 총무이사로 임명됐다.



▶ 매일신문 <문화칼럼> 필진 참여

김정숙 위원(영남대 국사학과교수, 대구중재부)은 매일신문 <문화칼럼>의 새로운 필진으로 참여한다. 김 위원은 지난 7월 15일 「우리 안의 아프리카」라는 제목으로 첫 칼럼을 게재했다.



▶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취임

김형태 위원(변호사, 대전중재부)은 지난 13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위원은 2년 전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 광주교육대, 9개 대학과 입학 사정관제 MOU 체결



박남기 위원(광주교육대 총장, 광주중재부)은 지난 14일 광주교육대 등 9개 대학과 입학사정관제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박 위원은 “향후 교사로서 잠재적 역량을 가진 인재의 발굴하기 위해 대학 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누기 결연식’ 개최



위철환 위원(대한변호사협회부회회장, 경기중재부)은 지난 18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랑나누기 결연식’을 개최했다. 지난 12년 동안 소년소녀가장을 후원해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날 후원 아동들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대전지역 언론인 간담회



권성 위원장은 7월 15일 대전 유성을 방문해 대전지역 언론사대표와 대전중재부 위원들과 함께 지역 언론 현황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도일보 김원식 사장, 대전MBC 배귀섭 사장, KBS대전방송총국 임창건 총국장,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대전중재부 이승훈 부장을 비롯해 한박무 위원, 김형태 위원, 김수정 위원, 양은경 위원 등이 참석했다.

권 위원장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조정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 현실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정정반론보도문의 크기와 위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사무처 인사

위원회는 2011년 8월 8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를 단행했다.

▶승진

- [1급]호남본부장 심영진
- [2급]정책연구팀장 양재규
- [3급]교육팀 차장 이재범, 홍보팀 차장 남승균

▶전보

- | | |
|----------------|--------------|
| [심리본부장] 황정근 | [연구본부장] 정희성 |
| [운영본부장] 권오근 | [중부분부장] 장원상 |
| [영남본부장] 권우동 | [교육전문위원] 조남태 |
| [기사심의팀장] 여중국 | [접수상담팀장] 이미경 |
| [예산회계팀장] 조준원 | [총무팀장] 이수종 |
| [접수상담팀 차장] 김주용 | |

오광건 사무총장 취임 외



신임 오광건 사무총장의 취임식이 지난 8월 1일 열렸다. 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화합하고 일할 맛 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성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원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용주 전임 사무총장은 지난 7월 22일 퇴임식을 갖고 임기를 마무리했다.

코이노니아 봉사활동



위원회 자원봉사단 '코이노니아'는 7월 9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치매노인요양원인 '샘터마을'을 방문해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제3차 운영위원회 개최

위원회 관련 규칙개정안을 심의의결하는 제3차 운영위원회가 7월 11일 프레스센터 15층 심리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총장 임명동의안 및 사무처 운영과 관련된 규칙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언론중재위와 법원의 손해배상 비교분석

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해 이뤄진 손해배상의 비율과 손해배상액이 법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팀의 분석결과, 법원에 접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인용 비율은 2008년 52.1%, 2009년 47.0%, 2010년 26.8%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비해 4~6.5배 높았다. 손해배상액 역시 법원이 언론중재위원회에 비해 2008년 7배, 2009년 6.5배, 2010년 13배 높아 해마다 그 격차가 심화됐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심리기일의 연장되더라도 증거조사 강화를 통해 사실관계파악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었음에도 사소한 의견 불일치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손해배상액 산정시 지나치게 낮은 액수를 배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2005년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접수 처리해 왔다.

외부강사 초빙특강



위원회는 7월 20일 프레스센터 6층 회의실에서 박상철 교수(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를 초빙해 '우리 몸의 노화와 기능적 장수'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박 교수는 그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노화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향후 장수시대에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촉구했다.

2011년 7월, 언론중재위원회는...



●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위원회는 7월까지 모두 1,311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처리결과별로 살펴보면 조정성립 428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64건(동의 41건, 이의 19건, 계속 4건), 조정불성립결정 152건, 기각 21건, 각하 8건, 취하 560건(372건), 계류 78건이며, 피해구제율은 70.1%로 나타났다. 피신청인 매체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4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387건, 신문 351건, 방송 122건, 뉴스통신 43건, 잡지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원회는 7월까지 83건의 중재결정을 내렸으며, 6건이 취하되고 5건이 계류중이다. 청구권별로는 정정청구가 48건, 반론청구 24건, 추후청구 12건, 손해배상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조정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피 해 구제율 (%)
			조 정 성 립	동 의	이 의	계 속	조 정 불 성 립 결 정	기 각	각 하	취 하	계 류	
1~7월	정 정	581	219	24	10	2	76	8	1	204(111)	37	66.4
	반 론	95	38	3	0	0	16	4	0	27(9)	7	59.5
	추 후	111	20	1	1	0	6	0	2	81(73)	0	86.2
	손 배	524	151	13	8	2	54	9	5	248(179)	34	72.4
합 계		1,311	428	41	19	4	152	21	8	560(372)	78	70.1

중재신청 처리현황

구분 월	청구명	청구 건 수	처 리 결 과			
			중재 결정	중재화해 결정	기 각	계 류
1~7월	정 정	48	40	0	3	5
	반 론	24	21	0	3	0
	추 후	12	12	0	0	0
	손 배	0	10	0	0	0
합 계		94	83	0	6	5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피해구제율=피해구제된 건수/조정건수

● 상담 현황

위원회는 7월 한 달 동안 211건의 상담(중복상담 포함)을 처리했다. 상담 처리결과로는 조정절차 안내가 18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기관 안내 22건, 재상담 예정 14건, 법적절차 안내 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매체유형별로는 일간신문에 대한 상담 건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49건, 인터넷신문 42건, 주간신문 30건, 인터넷뉴스서비스 23건, 뉴스통신 10건, 잡지 1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 교육 현황

위원회는 2011년 7월말 현재 93건의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교육을 실시했다. 대상 기관별로 보면 교육연수기관 30회, 언론사 23회, 인턴십 프로그램 15회, 지자체 8회, 대학 6회, 공·사기업 4회, 법무 수습교육 2회, 기타 5회 등이다.



위원회 소개

● 언론중재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7조에 의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준사법적 독립기구로,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조정·중재 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매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등),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서비스(포털 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신청절차

1. 신청기간

조정·중재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신청인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은 물론 일반단체나 회사, 공공기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언론중재아이넷(<http://people.pac.or.kr>)을 방문하시면 전자적인 방법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과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신 경우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하시어 담당직원에게 신청 내용을 직접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 : 02)397-3000, 3010, 3100, 3110

e-mail : counsel@pac.or.kr

홈페이지 : www.pac.or.kr

트위터 : www.twitter.com/pac_news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5층

“잘못된 언론보도는
사람과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신문·방송은 물론, 이제는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비용 없이 빠르게 해결해드립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정·중재신청 접수는 방문이나
우편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e-mail,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신문, 방송은 물론, 개정된 언론중재법으로
이제 포털·인터넷 뉴스까지 -
언론중재위원회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언론피해상담 02)397-3000

이메일상담 counsel@pac.or.kr

온라인상담 http://people.pac.or.kr

이 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